

특 집

# 책의 길, 도서관의 길

- 고대조선에서 지금의 일본, 그리고 '지(知)의 우주(宇宙)' 로

다케우치 사토루(竹内 慈)

일본도서관협회 전 이사장  
일본 도서관정보대학 명예교수

## 1. 머리말

오늘 한국의 사서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도서관의 3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즉 여러분, 책 등의 자료,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사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좋게 만드는 것도 나쁘게 만드는 것도 모두 사서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사서양성입니다만 세상의 이해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한국의 사서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세 요소 중에서 '자료', 즉 책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에 고대조선으로부터 일본으로 '책의 길' 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길을 통해서 '책과 사람의 생각의 교류' 가 있었습니다. 그 '길' 의 1300년 전의 종점이며, 일본에서의 출발점이 바로 도모지 나라(奈良)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대표단 여러분을 이곳 나라에서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의 네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고대조선으로부터의 '책의 길'
- 17~19세기 조선으로부터의 '책의 길'
- 일본 내에서의 '책의 길'
- 앞으로의 '도서관의 길'

책의 길, 도서관의 길

## 2. 고대조선으로부터의 ‘책의 길’

‘책의 길’이 당시 왜(倭)라고 불렀던 이 땅에 열린 것은 6세기 중반입니다. 고대조선의 삼국은 보다 일찍이 4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책의 길’이 열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여러 나라와 경계에 살고 있던 왜의 사람들도 일찍부터 문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며, 조선에서 문자를 능숙하게 구사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건너와 있었다고도 생각됩니다. 5세기의 ‘왜의 다섯 왕’이 중국에 사절단을 파견했을 때도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정권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책의 길’이 열린 것은 6세기 중반, 백제에서 불교가 전래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의학과 약학, 역학(曆學), 유교, 불교 등에 대한 책과 전문가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이 차례로 일본에 와서 학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종이, 문구의 제조법 등을 전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정해진 것은 7세기말의 아스카정견원령(飛鳥淨見原命)과 8세기 초의 다이호율령(大宝律令)에 따른 것입니다. 그 편찬에는 삼국에서 건너와 뛰어난 학문으로 정부에 등용되었던 사람들이 크게 공헌하였으며, 그들은 수나라와 당나라에 파견되었던 사신의 수행원으로 참가하여 외교교섭을 하거나 유학생이나 유학승려가 되어 중국문화와 불교를 배우고, 많은 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동대사(東大寺)에서 불교철학을 강의하고 화엄종(華嚴宗)을 열었던 것은 신라의 승려 심상(審祥)이었습니다. 동대사에 대불(大佛)이 만들어진 것은 고대 조선문화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따라 ‘책’이 전해지고 이 나라의 문화를 키워준 것입니다.

## 3. 17~19세기 조선으로부터의 ‘책의 길’

### 3.1 일본에 조선의 주자학을 전한 강항(姜沆)

이전에 미국에서 만난 한국의 사서는 “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임진·정유왜란과 1910년 이후의 일본통치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히데요시가 침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왔습니다. 그 중 강항(1567-1618)이라는 학자는 오즈(大洲, 愛媛縣)에 갇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교토에서 풀려나 후지와라(藤原惺窩)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퇴계(1501-1570)의 학설에 근거한 주자학을 전했으며, 후지와라가 새로운 훈점(訓点)을 붙인 사서(四書)의 발간을 도왔으며, 에도시대(江戸時代) 일본의 유학(儒學)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새로운 ‘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강항은 어렵고 힘들게 일본에서 2년

7개월을 지낸 후, 귀국하여 국왕을 알현하고 일본의 정세를 설명하며 일본의 재침략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고하였습시다.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1618년 5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오즈 성터(大洲城址)와 고향인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강향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내산서원(內山書院)도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 3.2 조선 통신사가 가져온 것

1605년 조선정부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사이에 화의(和議)가 성립됩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열두 차례에 걸쳐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매회 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으로, 학자와 문인, 화가, 의사를 포함하여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필담(筆談)으로 교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儒學)에 대하여 알고 싶어 했습니다. 17세기 말의 기록에는 일본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문(詩文)의 대가로 알려진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평생을 청소부로서 살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업적을 중히 여겼을 뿐 지위나 태생은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절단에게 만나 달라고 하여 시문의 침삭을 구걸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비평하기도 하고, 시를 지어 답하기도 하고, 휘호(揮毫)의 요청에 응하기도 하며 밤을 새워 일을 함으로써 건강이 나빠지기에 이르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일본의 문인에게 학자로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당시 학자 중 가장 높았던 임대학두(林大學頭)는 학문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세습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절단 중의 학자와 문인 쪽이 학식과 품위에 있어서 훨씬 뛰어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학문을 재검토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사절단은 이퇴계를 위시한 조선학자의 저작이 일본에서 많이 읽히고 있는 것에 놀라며, 일본학자의 저작 중에도 뛰어난 것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였습니다. 한시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였지만 이것은 중국음(中國音)을 모르는 일본인이 중국풍의 시를 짓는 것이므로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필담의 기록으로 후대에 전해진 것이 백 수십 부이며 일부는 출판도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책의 길'이었습니다.

### 4. 일본 내에서의 '책의 길'

학문의 진흥과 책의 생산·유통은 17세기에 들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14~15세기의 일본은, 예컨대 고려대장경(6,557권)을 얻고자 고려 정부에 26차례나 거듭하여 요청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 인쇄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려대장경은 내용의 교정이 엄밀하고 후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배경에

뛰어난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도시대가 되면 대장경뿐만 아니라, 『군서유종(群書類從)』과 같은 대규모 출판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는 전통적인 학문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 오규소라이(荻生徂徠)와 이토오진사이(伊藤仁齋)와 같이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창하고 예로부터의 학문을 재검토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갈성산 고귀사(葛城山 高貴寺) 자운(慈雲, 1718~1804)의 인도 고대언어연구는 메이지시대에 들어 해외 학자의 업적과 비교됨으로써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청나라 건륭제의 칙명으로 편찬된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 중에도 산정정(山井鼎)의 맹자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중국고전에 대한 일본인의 저작이 세 점이나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 국학과 의학, 약학, 박물학, 농학, 외국어의 연구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학문의 발전과 함께 하야시 시헤이(林千平)의 “책을 수집하고 개인열람실을 갖추어 독서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뛰어난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18세기 말에는 그 컬렉션을 사장(死蔵)하지 않고 “책을 잘 읽다”, 즉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줘야 한다”는 혼쿄(本居宣長) 등의 의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830년에는 근대 공공도서관의 전조로 무료 공개도서관 ‘아오야기 문고(靑柳文庫)가 센다이(仙台)에 만들어집니다. 이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신분도 출신도 불문한다”라는 것은 조선통신사가 남긴 생각과 겹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받은 감동이 점점 일본의 학자 사이에 퍼지고 국내의 학문발전, 서민의 면학의 욕과 식자능력의 향상이 서로 어울려서 ‘장서의 공개’라는 생각을 낳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5. 앞으로의 ‘도서관의 길’

### 5.1 도서관에 대한 깊은 관심의 표현과 그에 대한 대응

일본에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때는 메이지유신 직후와 1945년의 패전 후, 각지의 도서관운동이 있던 1970년대 이후입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에서는 1929년 대공황 후,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후인 1970년대, 그리고 동유럽에서는 정치적 변동 후인 199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시대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던 시기에 도서관은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동안 실제 경험을 통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도서관 역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서비스의 충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도서관정책의 확립,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즉 납세자와 그 가족의 도서관에 대한 깊은

이해, 나아가 사서의 장기적인 노력에 의해 생겨납니다. 오늘날에는 ‘책을 보존하는 곳’이라는 오래된 도서관의 이미지가 ‘무료로 자유롭게 책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책을 모아 대출하면 그만이다”라고 해석하고는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서관은 본래 사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수단(도서관 자료), 방법(도서관서비스),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사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살려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인적으로서도 사회로서도 다음 시대를 살기 위한 조건으로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서의 양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회기관의 하나로서 한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원할 사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건전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 5.2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은 193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80년이 지난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도서관을 생각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랑가나단 박사가 그야말로 인도의 학자답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도서관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끝에 그 5법칙의 항목만을 실어두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5법칙은 그 표면적인 의미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그 다섯 가지를 연결하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5법칙으로 함께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깊은 의미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1법칙에 책은 사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며, 단지 보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2와 제3법칙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책을 찾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4법칙은 모든 도서관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조직되며, 그것을 기반으로 도서관서비스가 정확하게 제공된다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원이 “환자의 시간을 절약하라”는 방침을 세운다면 환자는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러나 그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생각하면 이 법칙의 의미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5법칙은 “도서관이란



정지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를 변화해가면서 살아가는 생명체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항상 제1에서 제5까지의 법칙에 따라 자기 검증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와 그 교육을 자신 속에서 살리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는 사람의 힘으로 진보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자세는 앞에서 말한 조선통신사의 사고방식과도, 또한 세계의 뛰어난 교육자의 생각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앞으로의 어린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갖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초가 되는 생각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울러 넓은 의미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과 교육방법으로서의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 6. 맺음말

앞에서 말한 이러한 자세는 협력과 상호이해로 이어져 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도서관의 공통된 이상이며, 그 규모가 엄청나서 ‘지(知)의 우주(宇宙)’라 표현됩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이해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런 긴 시간관(時間觀)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인에게 매우 서툰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크게는 세계의 ‘지(知)의 우주(宇宙)’를 구축하는 ‘도서관의 길’을 부디 함께 걷자고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며 이야기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 책은 이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Books are for use.
- 모든 이용자에게 그의 책을. Every person his or her book.
- 모든 책에게 그의 독자를. Every book its reader.
-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Save the time of the reader.
-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A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